

취향껏... 마음껏... 휴가지의 종합선물세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했다.

아직 올 여름 휴가지를 못 정했다면 '풍요롭고 찬란한' 세계 유산도시 고창으로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고창군은 남녀노소 취향 따라 선택하는 여름 휴가지의 종합 선물세트 같은 곳이다.



▲해수욕장(구시포·동호)

파도가 넘실거리는 고창의 푸른 바다는 바다만 봐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고창에는 2곳의 해수욕장(구시포 동호)이 저마다 고운 백사장과 수백그루 소나무 숲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캠핑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선운산국민여가캠핑장·북분자유원지·고창갯벌오트캠핑장)

초록 녹음이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 바다를 보며 즐기거나 숲 속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캠핑은 여름의 낭만을 더해준다.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성된 캠핑장으로 탁트인 넓은 바다를 보며 멋진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선운산국민여가캠핑장과 북분자유원지에 위치한 캠핑장은 푸르른 산을 끼고 있어 조용하고 여유로운 캠핑을 즐기기에 좋다.



고창갯벌오트캠핑·글램핑장은 넓은 고창갯벌을 끼고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

▲계곡(고수면 신기계곡)

나무가 우거진 시원한 그늘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고창군의 깨끗한 계곡은 온 가족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고수면 신기계곡은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암벽과 능선을 끼고 있으며 수영장 같은 탕을 만든다. 신기계곡을 찾아 폭 쏟아진 백수를 물어 먹으면 아무리 무더위 속이라도 이보다 더한 신선놀음은 없다.

고창군은 올해 나들목공원과 북분자유원지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재미난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인생샷 명소(고창갯벌)

볼리비아의 소금사막을 닮은 '한국의 우유니' 고창갯벌. 서해안 비탈공원 앞 모래갯벌은 단단해 걸어도 뛰어도 거뜬하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무명한 물에 비친 자신과 파란 하늘이 마치 신세계인 듯 황홀경을 자아낸다. *단, 물때가 급격하게 변하니 주의.

▲물놀이장(나들목공원·북분자유원지)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자 물줄기도 시원하게 뿜어나간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잠시나마 찌뽀뽀에서 해방되는 기분을 즐긴다.

고창군이 본격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창군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관광객의 마음



해수욕장, 고운 백사장 일품

캠핑장, 소나무 숲 속에서 여름철의 낭만 느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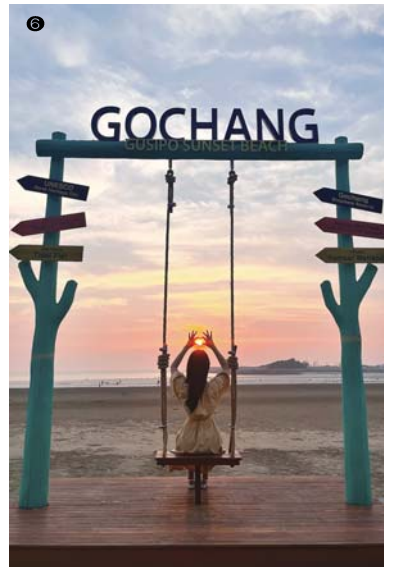
고수면 신기계곡, 더위 피해 휴식 즐기기에 안성맞춤

나들목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즐거운 여름방학 만끽

서해안 바람공원 앞 모래갯벌에서 인생샷도

- 1 고창갯벌
- 2 나들목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 3 북분자유원지
- 4 동호국민여가캠핑장
- 5 선운산국민여가캠핑장
- 6 구시포 포토존

을 사로잡기 위해 '우리가 만날 특별한 여름, 고창'이라는 주제로 △여름 사진 명소 △여름 관광지 △여름 행사를 SNS, 방송·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부드러운 여름에 특별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며 바다와 계곡, 도시의 물놀이장이 어우러진 고창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방문객들이 고창에서 편안한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휴가지 물가관리, 청결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3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백두대간의 침입자들

2023. 07. 28(금) ~ 8. 27(일) 매주 월요일 휴관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문의사항 : ☎ 063-620-5752~4

물 속의 먹보
'배스'

생태계 악당
'붉은귀거북'

오줌싸개
'꽃매미'

논두렁 말쑥쟁이
'미국가재'

사고똥치
'뉴트리아'

연못의 골목대장
'할소개구리'